박경철의 '오디세이아'

교육의 본령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 연일 교육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직 아테네 시장과 대주교가 선두에 서고 시민이 뒤를 따르는 초대형 시위의 주제는 대학 구조조정이다. 그만큼 교육은 어디서나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리스와 우리의 이슈는 다르다. 그리스는 무상교육 철회에 반대하는 시위이고, 대한민국의 이슈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 입시문제다.

우리의 모든 교육제도는 입시에 맞춰지고 입시제도에 따라 변화했다. 대학교육이 국가 인재 육성이냐 개인의 문제냐는 그리스의 관점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

교육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키우는 일이고,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이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부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외워온 단테의 신곡, 정약용의 목민심서유의 암기는 주입식 교육의 결정판이다.

왜 우리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의 제목을 외워야하는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음악·미술·시 등 예술과목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문학·미술·음악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이 시인과 예술가의 영감을 자연스레 체험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영감을 지닌 이들이 예술가다. 길을 지나는 나그네가 진달래를 보고 '색이 곱다'고 감동할 동안 그 진달래에서 핏빛 역사를 읽거나, 생과 사의 무상을 발견하는 이들이 시인이자 예술가다.

우리가 시를 읽거나 음악을 듣고 미술을 감상하는 이유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시인 예술가의 눈을 빌려, 영감과 창의성을 확득하는 길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음악의 부호를 외우고, 바이올린과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화성과 대위법을 아는 것은 예술교육의 본령이 아닌 것이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교육에서 독서를 강조한 지는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다. 80년대 까지의 교육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쓸데없이 소설책을 읽느냐'는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90년대 이후 우리 교육은 어떠했을까.

물론 거기에는 입시에서 논술과 자기소개를 전형의 한 수단으로 도입한 이후 독서는 꽤 비중있는 영역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1인당 도서구매는 퇴보하며, 좋은 책과 출판사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책을 읽고 자란 세대가 책을 읽지 못하고 자란 세대에 비해 더 책을 사지 않는다는 역설적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 역시 독서교육의 본령이 벗어난 때문이다. 이익의 '성호사설', 단테의 '신곡'식으로 학교에서 지은이와 제목을 무작정 외던 시기를 지나, 추천도서를 찾아 읽게끔 되었지만, 그런 읽기 교육이 올바른 독서문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그 교육은 실패다.

이유는 무엇일까? 책을 읽는 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것과는 다르다. 안다는 말은 '감동'과 '감흥'처럼 결이 다른 말이다. 하지만 우리 읽기 교육은 단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아이들은 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을 기억하고 외는 일이 중요해졌고, 그 결과 독서를 힘든 일 피곤한 의무사항처럼 여기게 되었다.

진짜 독서교육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책 속의 좋은 말에 줄을 긋고 줄거리나 멋진 문장을 욀 이유는 더더욱 없다. 포털에 키워드만 쳐도 멋진 구절들이 원문 그대로 줄줄 나오고, 명언 명구는 많다 못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왼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읽고 느끼고 반영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권의 책을 읽고 영감을 얻으면 그것을 사색하고 내 삶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느낀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태도가 형성되고, 그 달라진 태도가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달라지게 한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학습도 그렇다. 배우면 익혀야하고 가르치면 키워야 한다.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학원과 키우고 익히는 학교의 차이가 이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육'과 '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종교칼럼

민들레, 계절의 여왕

원 광
나주 원각사 주지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말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실감이 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은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오월에 들어섰으니 잠시 곁눈을 팔았다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작지만 소중한 것, 혹은 바쁜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느리게 흘러가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잊고 사는 우를 범할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어제는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갔다가 참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도블록 사이 보이지도 않는 틈새를 뚫고 민들레 한 줄기가 잎을 피우고 홀씨를 매단 채 바람이 불어 씨앗을 멀리 날리기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무심한 풍경일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의 인고(忍苦)와 풍상(風霜)을 알만한 나이의 사람에게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줌 흙도 부족한 인도블록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홀씨를 매달기까지 민들레가 겪었을 고난이 예사롭지가 않았을 터인데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저리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었으니 세상의 진리가 어쩌면 저 한 송이 민들레 안에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들레 홀씨 한 줄기를 피우는 것이 무에 그리 특별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무심히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일 따름이고,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매서운 겨울을 견뎌내고 단단한 블록 사이 한 줌의 흙을 찾아 뿌리를 뻗어 싹을 틔우고 오가는 행인들의 발길 속에서도 덤덤하게 잎을 펼쳐 꽃을 피우기까지 민들레가 겪었을 고난을 생각한다면 보잘것없는 꽃송이 하나, 홀씨 하나라도 소홀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작고 미미한 것이라 소홀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는 빠르고 새로운 것들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에 반하여 수수하고 평범하고, 또는 느리고 익숙한 것은 소홀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나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수수하고 평범하고 느리고 익숙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입맛을 돋워주는 평범한 봄나물들이 그렇고, 때가 되면 흐드러지게 피어나기에 익숙하지만 봄이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알려주는 개나리 진달래가 또 그러합니다. 평범하고 익숙하다 해서 결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님은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흔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일컫습니다. 일년 중 가장 많은 종류의 꽃들이 피어나는 때이고 새로 일어난 생명의 기운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계절이라 그 화사함이나 생명의 싱그러움이 최고조에 오를 때이니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썩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한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평범한 들풀들의 고난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꽃들의 아름다움이 몇 배로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것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 평범하고 익숙하기에 지나쳐 왔던 사실, 이는 세상사 모든 일에 그대로 투영되는 진리이기에 감히 허투루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져보면 세상사가 모두 이와 같으니 꽃샘 추위가 매서울수록 봄꽃의 화려함이 더 선명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그 성공이 더욱 각광을 받게 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고생했던 모든 이들의 노고가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으셨으나 그 바탕에는 6년간의 긴 고행이 있었고 부처님께 생로병사의 실상을 보여준 수많은 중생들의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지금 눈 앞에 보이는 민들레 한 송이가 결코 평범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들레 한 송이야말로 계절의 여왕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 생각하기에.

기 고

책 읽는 광장, 설렘으로 물들다

안 미 영
광주시립도서관 관리과장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지표들이 있다. 사랑, 행복, 건강, 성공, 희망 등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간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행복지수에 따르면,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는 호주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2014년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는 34개국 중 33위로 꼴찌수준이다.

경제는 발전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왜 사람들의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

아직까지도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고 바삐 살아가는 세상속에서 책을 통한 힐링의 시간, 마음의 치유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고문진보'에 "책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책과 함께하는 인생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 그 안에서 여러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우리 도서관은 모든 광주 시민이 책을 통해 행복과 성장의 기회를 얻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민과 시민이 더불어 나누는 참여·소통의 한마당을 마련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도서관 문화마당이 '책 읽는 광장, 설렘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시청 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를 위해 광주지역 도서관(공공·작은·대학·학교)과 독서단체, 출판사 등 50여개 기관이 함께 모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책 읽는 벤치, 책농장, 웹툰전으로 꾸며지는 옥외 체험형 '광장도서관'을 메인으로, 시민들이 각자 소장하고 있는 책을 서로 교환하고 기증하여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북적북적 책 나눔장터', 무지개 물고기 공연 및 블랙 라이트 체험을 할 수 있는 '동화체험존', 온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퀴즈를 풀어보는 '가족 독서왕대회', 행사당일 스마트폰 촬영 사진으로 사진엽서를 만들어 가까운 친구에게 보내는 사진엽서 우체국 등 다양한 참여행사가 꾸려진다.

또한 독서명언부채 만들기, 펄러비즈 등 30여개의 독서체험부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체험활동이 진행됨으로써 참여자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문화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난타공연, 청소년 동아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힙합댄스, 매직버블쇼 등 신나는 문화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책 읽는 시민이 되어 보면 어떠할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푸르른 5월, 설렘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몸소 다가오는 봄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도서관 문화마당'에 와서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 적극 활용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 명령제도가 2011년 10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 친권행사 제한으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신청가능하며, 사건처리는 원치 않으나 보호받고자하는 피해자에게 맞는 지원제도이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해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무료법률지원'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금전 또는 현물)이 가능하며,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주거지원, 쉼터 입소지원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117) 또는 여성 긴급지원전화(1366)에 문의하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설명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돼 사회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산수동

社 說

농민들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밥쌀용 쌀 수입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단체는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수입하기로 한 밥쌀용 쌀은 오는 9월과 10월 5000t 씩, 총 1만t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밥쌀용 쌀이 수입돼 국내의 고정 수요층이 있고 갑자기 수입을 중단하면 외국산 제품 차별에 대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수출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분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30%는 밥쌀용 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더 이상 밥쌀용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수입을 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쌀값 하락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424만t 중 신곡 수요량 40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 안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초 2014년산 80㎏ 기준으로 17만7000 원대였던 산지 쌀값이 7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 15만8000원대까지 추락하고 있다.

가격 폭락을 잡지 못해 최근 7만7000t을 추가 격리키로 했지만 반등세로 돌아설 기미가 없다. 밥쌀용 쌀의 현재 재고 물량도 11만t에 이르는 등 시장 상황은 물론 쌀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쌀 농업의 위기라고 말한다. 특히 밥쌀용 쌀은 가공용 쌀과 달리 품질 등급이 높아 수입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 품목이다. 그런데도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겠다니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작정인가.

한전 입찰비리 브로커·업자에 놀아나다니

10년 간 공사 총액 2700억 원대의 한국전력 입찰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관련자만 27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전국 네트워크까지 구축한 브로커와 업자들에게 놀아난 결과였으며,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전기공사의 입찰·계약·관리 과정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광주지검은 21일 한전 입찰비리와 관련, 낙찰가를 조작해 거액을 편취한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 브로커 3명, 공사업자 20명 중 2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 불구속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133건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입찰비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입찰 조작책 83억 원, 브로커 53억 원, 불법으로 공사를 따내 도급을 준 업체들이 떼먹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비리 규모는 공사 수금액의 20~30%에 달했다.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할 경우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시스템 관리 부실은 차치하고라도 '하늘에 별 따기'로 비유될 만큼 확률이 낮은 낙찰을 30건이나 받은 업자가 있는데도 한전이 방관했다니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이번 입찰 비리는 한전이 알고도 묵인했든, 아니면 시스템이 허술했든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한전은 이날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고강도의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 비리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無等鼓

2900원

출판사 문학동네가 펴내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3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한데 책값은 5500원에 불과하다. 출판사가 매긴 적정가는 1만2000원. 책 뒷면에는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상의 취지에 따라 출간 후 1년 동안은 보급가로 판매한다'는 안내글이 쓰여 있다. 제6회 수상자를 낸 올해 작품집에는 정지돈의 '건축이냐 혁명이냐' 등 흥미로운 작품 7편이 실렸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들을 만나는 책은 또 있다. 지난 2011년 첫권을 내놓은 '올재 클래식스'다. '올재'는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소외 계층과 청소년층 등에게 고전과 문화·예술 관련 책을 보급하기 위해 (사)올재가 펴내는 시리즈로 권당 가격은 2900원. 지금까지 '도덕경', '햄릿' 등 57권이 나왔다. 매분기 4권씩, 5000부를 발행하며 1000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6개월간 한정 판매한다.

'올재 클래식' 중 반응이 뜨겁고 재발행에 동의한 책에 한해 '올재 셀렉션'도 펴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등 7권이 출간됐고 판매가는 6900~8900원 선이다. 수익금 전액은 지혜 나눔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최근 도서출판 은행나무가 2900원짜리 문예서평지(격월간)를 펴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잡지 이름은 독일어로 '도끼'를 뜻하는 '악스트(Axt)'. "한 권의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는 프란츠 카프카의 문장에서 따왔다.

소설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에는 장·단편 소설과 서평, 작가 인터뷰 등이 실린다. 편집위원 역시 평론가가 주를 이루는 기존 문예지와 달리 소설가로 구성했다. 백가흠, 배수아, 광주 출신 정용준 작가가 초대 편집위원을 맡았다.

2900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2900원'을 쳐보니 2900원 뷔페, 2900원 칼국수 등 먹을거리가 좌르르 뜬다. 패스트푸드점의 2900원짜리 세트도 눈에 띈다. 한끼 식사로 거뜬한 음식들이다.

정신적 허기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2900원짜리' 잡지를 기다린다. 이기호·김경욱·정영목·전경린 등 화려한 필진들이 포진했다 하니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창간호는 6월말 출간된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